

여름낮

카페 외부 낮

여자가 카페로 들어온다

10분뒤 남자가 들어온다 (편집 디졸브 효과)

카페 직원 문을 열고 다시 들어온다

카페 낮

여자가 카페에 앉아서 남자를 기다리고 있다

여자: 그대로네 늦는건 (웃으면서)

남자: 미안해 차가 조금 막혀서 (애써 핑계대는 것처럼)

여자: 저번보다 얼굴이 좋아졌네

남자: 다행이네 요즘에 일들이 많이 없어서

아 뭐먹을래 내가 주문할께

여자: 난 아메리카노

남자: 너 원래 커피 못먹잖아 (약간 놀래면서)

여자: 야 그때가 언제적인데

남자: 그래 시키고 올께 (카운터로간다)

여자는 옷과 머리를 만지면서 정돈한다 자세를 다시 잡는다 (조금 긴장한 표정)

남자 : 카운터로 갖다준다고 하네
그동안 어떻게 지냈어?

여자: 응 그냥 애들키우면서 살았어

남자: 아... 그림은 안그리고 ?

여자: 가끔가다 취미로 그리는데 예전처럼은 안그려
너는? 회사운영한다고 들었는데

남자: 조금한 디자인 회사하고있어 저번에 대충애기했지

여자: 저번에 보니깐 와이프 되게 젊더라 (시크하게)

남자: 아 회사다니실때 같이일하던 친구야 조금어려 (말끝을 흐리며)

여자: 세월빠르다 진짜 오는길에 친구들이랑 먹었던 술집 생각나더라

남자: 아 기억력 좋네 나는 기억도 잘안나
너는 그때 왜 혼자 나온거야

여자: 몇년전에 헤어졌어 아마 그날은 옆에 있을꺼야

남자: 아맞다 저번에 이사하다 친구들이랑 찍은 사진 있는데 한번볼래?

여자: 진짜!! (안경을 꺼내면서)

남자가 핸드폰에서 사진을 보여준다 여자가 안경을쓰고 본다

남자가 여자의 모습을 바라본다

여자: 어머 다들 보고싶다

남자: 상운이랑은 연락하는데 다른친구들은 뭐하나 사나 모르겠다

여자: 아 상운이 오랜만에 듣는 이름이네

직원이 아메라키노2잔을 갖다준다

여자가 커피를 먹는다 커피잔에 립스틱 자국이 남는다

남자: 가끔가다 너 생각 많이 났어

여자: 그래 생각나줘서 고맙네 (무안한표정)

남자: 2년동안 학교다니면서 둘이 찍은 사진이 하나도 없더라

여자: 그러게 그때는 사진 찍을일이 많이 없었어 이젠 찍고싶어도 늑어보여서 찍고싶지 않더라

남자: 나두야 한살이라도 어릴때 많이 찍어둘걸 (공감하면서)

여자: 그래도 이렇게라도 만나게 되서 너무 반가워

남자: 그래 다들 자식들이 잘자라줘서 다행이다
조금 빠르지만

여자: 그래 나두 빨리 갔지만 너두 빨리 가서 놀랬어

남자: 1년후에 갔지 정신 없어서 부르지도 못했네

여자: 나두 마찬가지로

남자: 잘봐줘 내딸 뭐라고 하지말고

여자: 너두 내자식 잘봐줘 (웃으면서)

남자: 얼마 안남았네

여자: 맞아 결혼식때 보자

남자: 울지말고

여자: 너나 울지마

남자: 그냥 서로 울자 우리부모님도 울었는데

여자: 잘지내

카페외부

둘이 문으로 나온다

남자는 오른쪽

여자는 왼쪽으로 간다

end